

The Symposium of International History Education Experts

**박물관과 기념관을 통한 역사교육  
: 유럽과 동아시아의 비교**

**History Education in Museums and Memorial Halls  
: Comparison of Europe and East Asia**

# Contents

---

인사말 ————— 3 p

행사 개요 ————— 7 p

## Keynote Speech

팔크 핑엘 / Falk Pingel ————— 13 p

## Session 1

폴커 로데캄프 / Volker Rodekamp ————— 23 p

토마스 오쿠르카 / Tomas Okurka ————— 46 p

## Session 2

박연희 / Yun-hee, Park ————— 54 p

우에노 마사노부 / Umeno Masanobu ————— 65 p

마틴 리파하 / Martin Liepach ————— 75 p

이명화 / Myung-hwa, Lee ————— 88 p

## Special Statement

마티나 취르너 / Martina Tschirner ————— 98 p

## Session 3

안드르제이 카코르치크 올렉시 / ————— 110 p  
Andrzej Kacorzyk Oleksy

발트라우드 부르거 / Frau Waltraud Burger ————— 119 p

기미즈카 요시히코 / Kimizuka Yoshihiko ————— 131 p

정호기 / Ho-ki, Chung ————— 140 p

## 인사말 ①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청중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행사에 기조발언을 해주실 팔크 핑엘 박사님, 발표를 위해 멀리 독일에서오신, 폴커 로테캄프 박사님, 마틴 리파하 박사님, 마티나 취르너 박사님, 발트라우드 부르거 연구원님, 그리고 폴란드에서 오신 안드르제이 카코르치크 올렉시 연구원님, 체코에서 오신 토마스 오쿠르카 교수님,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오신 우메노 마사노부 교수님 과 기미즈카 요시히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내에서 참석하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은 박물관과 기념관 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생생한 역사적 체험을 매개하기 위한 교육방법론을 유럽의 박물관과 기념관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고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험을 교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현장학습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과거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역사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입시제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중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을 통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역사적 유물들과 대화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석하신 전문가들과 교류하시길 기대합니다.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남긴 유물들을 관찰하면서 감성적으로 역사를 체험할 때 그 배움은 오래오래 각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엄이 유럽, 일본, 그리고 국내전문가들 사이에 활발한 의견교환과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Opening Statement ①

Welcome! I am Chung Jae-jeong, President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participants of this Symposium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and these hot summer days.

In addition, to the keynote speaker for this academic event, Dr. Falk Pingel ; to Dr. Volker Rodekamp, Dr. Martin Liepach, Dr. Martina Tschirner, and Frau Waltraud Burger from Germany; to Mr. Andrzej Kacorzyk Oleksy from Poland; to Mgr. Tomas Okurka from the Czech Republic; and to the scholars from our neighbor Japan, Dr. Umeno Masanobu and Dr. Kimizuka Yoshihiko, I would like to sincerely express my gratitude for your presence.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presenters and discussants and chairs from Korea for attending.

The purpose of this symposium is to discuss the teaching methodology of museum and memorial field trips so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history in a real and vivid manner. We will have education professionals and experts from Europe and East Asia share and exchange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this topic.

Today, more students vividly experience and think about the past through field trips, and they are emphasized as essential parts of history education in Europe. However, because of the deep influence of the admissions process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these important field trip experiences are neglected here in Korea.

I invite you to interact with the experts attending this symposium and discuss how we can effectively provoke students' interest in history and how to teach the method of learning from historical artifacts. It is only when students experience history emotionally can their education be stamped in their minds, and this is accomplished not only through theoretical knowledge but also while observing artifacts left by their ancestors.

Finally, I look forward to the active and lively exchange of opinions and a fruitful discussion on this topic amongst the experts from Europe, Japan, and Korea in today's symposium. Thank you very much.

## 인사말 ②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최광식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팔크 핑겔(Dr. Falk Pingel)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대중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탄생한 “박물관”은 전시를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박물관을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박물관은 역사교육의 대중화, 정보화, 세계화, 특성화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박물관과 기념관에서의 역사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탈냉전 시대 박물관의 역할’, ‘역사교육 장소로서의 박물관’, ‘화해를 위한 역사교육장으로서의 기념관’ 등 3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특히, 통일 독일, 체코, 일본, 한국의 박물관과 기념관이 가지는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8월 5일, 조선실을 신설 개막하게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통사전시체제 구축을 마무리하며 명실공히 ‘일맥상통 우리역사’의 전당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서에 있는 통사적 역사 흐름을 반영한 전시관 개편사업의 완성으로, 역사교육의 중요한 장으로써의 박물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학술회의 기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을 방문하시어, 1층에서 한국 역사 전체를 돌아보고, 2층과 3층에서는 조각, 공예, 서화 등의 명품과 아시아의 문화재를 만나면서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준비한 모든 관계자분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pening Statement ②

Hello ladies and gentleman, I am Choi Kwang-shik, and it is a great pleasure that I greet the proceeding of this conference on behalf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ist of all, it is a privilege to add our greetings in welcoming such distinguished scholars and participants including Dr. Falk Pingel to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conducted by the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East-Asia Cultural Exchange and co-sponsor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Museum", a history education spot for the public, is a place to identity the three-dimensional course of history through an exhibition. Consequently, we can utilize museum as a field of history education in various ways, and by doing so we can assert that a museum is a site for the popularization, informationalization, glob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history education.

This conference will be conducted in three parts: 'The role of the museum in the post-Cold War era', 'The museum as a site of history education', and 'Memorials as sites for the history education of reconciliation', under the theme of "Education through museums and memorials". I firmly believe this conference will assist us to seek a right path to the future by examining the importance of history education and its significance, especially the museums and memorials in united Germany, Czech Republic, Japan, and Korea.

On August 5, 2010,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re-organized the Joseon hall,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history system; we have been promoting a hall of "Thread of connection in our history". This reformation of the exhibition hall, which reflects a comprehensive flow of history in the textbook, shows another example of the museum as an essential site for history education. Please visit the permanent exhibi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uring the conference period, see the comprehensive Korean history on the first floor, and enjoy the Asian cultural assets and masterpieces such as sculpture, crafts,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 I hope everyone can experience the beauty and the depth of our culture.

Once again, I want to extend my gratitude to all of you for taking a part in this conference. Thank you.

<행사 개요>











# Keynote Speech

팔크 핑엘 / Falk Pingel  
(전 게오르그-에커트국제교과서연구소 부소장)



















## Session 1 - ①

# 통일 독일의 박물관 통합

Integration of Museums  
in united Germany

폴커 로데캠프 / Volker Rodekamp  
(라이프치히 시립박물관 관장)













































## Session 1 - ②

# 체코 박물관에서의 과거청산

##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in Czech Museums

토마스 오쿠르카 / Tomas Okurka  
(체코 오스티 시립박물관)















## Session 2 - ①

#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교육

## Historical Education in National Museum of Korea

박연희 / Yun-hee, Park  
(국립중앙박물관)

#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교육

박연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목차

- I. 박물관 교육의 의의
- II.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변천사
- III.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교육 사례
- IV.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교육 전망

## I. 박물관 교육의 의의

학습은 폭넓은 일련의 과정이다. Hooper-Greenhill(2001:2-7)이 주장하듯이, 인지와 기억은 학습의 기초이다. 인지는 이전 경험에 의해, 더 나아가 동기와 태도, 문화와 배경 특히 박물관에서는 디자인, 동선 그리고 물리적 배치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박물관에서의 학습은 단순히 사실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습은 사실 뿐 아니라 경험과 감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개인적 활동일 수도 있고 사회적 경험일 수도 있다. 박물관은 이 같은 사회적 경험이 가능한 편안한 장소이다.<sup>1)</sup> 다시 말해서 박물관은 사람들에게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학습을 아우르는 박물관 교육은 학습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떨어져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물과의 일대일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이다.<sup>3)</sup> 기존 학교에서의 공교육과는 다르게 자신감, 호기심, 동기유발, 개방적 시각을 발현시킬 뿐 아니라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이러한 박물관 교육<sup>4)</sup>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대중성

유물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박물관 교육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이다. 학습자의 특성과 이해능력, 취향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분류, 개발하여 유물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5)</sup> McCarthy(1996 : 38-42)는 학습자가 4가지 다른 유형으로 나뉘어서 각각 그에 맞는 스타일의

1) Eilean Hooper-Greehill and Theano Moussouri, Researching Learning in Museums and Galleries 1990-1999: A Bibliographic Review (Leicester: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2001), p.2

2) Ibid., p.7.

3) Gail Durbin, ed., Developing museum exhibitions for life-long learning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1996), pp.30-32.

4) Inspiring Learning for all. 'How we define Learning', <http://www.inspiringlearningforall.org.uk/learning/index.html>, as of 30 June 2010.

5) Eilean Hooper-Greenhill and Theano Moussouri, Researching Learning in Museums and Galleries 1990-1999: A Bibliographic Review (Leicester: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2001), p.2.7.

방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렇게 각자의 학습 성향에 맞게 개발된 교육을 활용하여 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명백하다.<sup>7)</sup>

## 2. 전문성

유물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심화된 내용을 학습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박물관 교육의 또 다른 중요성이다.<sup>8)</sup> 즉, 전시실에서 유물에 대해 설명하는 패널이나 브로슈어 이 외에 넓고 깊은 전반적인 배경과 전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일반적인 교육의 형태인 '강좌'의 경우, 대부분이 이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발·운영된다.

## 3. 자율성

흔히 '교육'이라고 하면 교수자가 학습자를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인솔하는 방식을 생각한다. 하지만, 학습자가 유물에 스스로 몰입하여 흥미를 가지고 유물을 관찰, 탐구하게 하기 위함<sup>9)</sup> 또한 박물관 교육의 주된 목적이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인 방식의 교육을 지향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향과 속도, 관심을 정해 정규교육과는 다른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학습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다양한 지능과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박물관이다.<sup>10)</sup>

위 3가지 특징의 저변에 흐르는 전제는, 박물관에서의 교육이 단순히 전시되어 있는 개개 유물의 특징을 아는 것을 넘어, 전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관람객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게 하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이다.<sup>11)</sup>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반가사유상을 관찰하면서 그 제작연대와 과정, 생김새 등의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전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개인적 해석과 의미 부여 활동이 실현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박물관 교육의 의의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 교육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어 왔는지 그 변천과정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II.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변천사<sup>12)</sup>

## 1. 경복궁 1기(1945~1954년)

1949년 중학교 교사들에게 실시한 공개 미술 강좌로부터 출발한 교육 활동은 미술에 관한 것으로 박물관 직원과 미술연구회 회원이 강사로 초빙되어 운영되었다. 이는 박물관의 조사와 연구, 강연을 사회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박물관 교육은 광복 이후 박물관의 성격을 회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

6) Gail Durbin, ed., *Developing museum exhibitions for life-long learning*, pp.38-42.  
7) Theano Moussouri,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learning outcomes in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p.20, <https://ira.le.ac.uk/bitstream/2381/168/1/LIRP%20analysis%20paper%202.pdf>, as of 30 June 2010.  
8) Eilean Hooper-Greenhill, 'Developing a scheme for finding evidence of the outcomes and impact of learning in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the conceptual framework', <https://ira.le.ac.uk/bitstream/2381/66/1/LIRP%20analysis%20paper%201.pdf>, p.5, as of 30 June 2010.  
9) Eilean Hooper-Greenhill, ed.,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useu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p.68.  
10) Gail Durbin, ed., *Developing museum exhibitions for life-long learning*, pp.35-37.  
11) 류현중, 「박물관 전시 구성과 초등학교생들의 문화 재현」, 『역사교육연구』 7, 역사교육학회, 2008, pp.150~183.  
12) 박연희, 「국립박물관의 교육활동」, 『한국 박물관 100년사』, 사회평론, 2009, pp.326~340.

이 시기에 국립박물관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를 축으로 해서 사회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강좌를 상설화하게 되면서 광복과 더불어 박물관 교육이 박물관의 중요한 목표로 정착되었다.

경복궁 1기에서 보듯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의 시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와 연계된 역사교육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경복궁 2기(1972~1986년)

전쟁으로 심각한 위기와 시련에 직면한 남산 시기(1954~1955년)와 피난시대인 덕수궁 시기(1955~1972년)를 거쳐 경복궁 2기에 박물관 교육의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다.

1974년 어린이 ‘미술실기대회’는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재를 직접 보고 그리면서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교육으로 지금까지 ‘문화재그리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1977년 ‘박물관특설강좌’ 등의 개설로 교육의 기본적인 체제가 모양을 갖추었는데, 이 특설강좌는 이수생들이 자체모임을 만들어 연구모임을 진행해 올 정도로 성공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각종 문화기관에서 실시되는 문화강좌의 효시가 되었으며 1987년부터는 한국박물관 회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1981년에는 교육을 전담하는 섭외교육과가 신설되면서 연령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초를 마련한 가운데 1986년에는 토요일문화체험교실이 열렸다. 또한 이 시기에 아래 『박물관신문』 칼럼에서 보듯이 박물관의 보급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이 커져감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기능을 말할 때 자료의 수집보관과 조사연구를 거쳐 그것을 전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보급교육에 임하는 것을 크게 꼽는다. 그리고 보면 궁극의 목적은 전시라는 방법을 통한 보급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sup>13)</sup>

아울러,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과 박물관 강좌의 확대 실시도 언급되었다. 이와 같이 동호인이나 전문가를 위한 학술강연회, 교사를 위한 박물관 특별강좌, 주한 외국인 부인들을 위한 한국문화 강좌, 연중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민들을 위한 특설강좌, 어린이 문화재 미술실기대회, 청소년 문화강좌, 어린이박물관현장학습 개설 등 다양한 교육의 형태가 기틀을 잡아간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한 점을 아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과 보강과 더불어 그 부족함을 박물관에서 메우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박물관 탐방을 더 적극화 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박물관은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작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각종 도표와 지도의 비치, 진열장 높이의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중략)<sup>14)</sup>

경복궁 2기에는 1기에서 시작된 교사를 위한 강좌가 더 체계화된 것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도 실시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박물관 역사교육의 폭이 더욱 넓어지

13) 李蘭暎, “博物館의 普及教育 活動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제109호, 1980. 9.

14) 安輝濬, “博物館과 國民教育(下)”,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제133호, 1982. 9.

고 내용도 다채로워졌음을 알 수 있다.

### 3. 경북궁 3기(1986~1996년)

이 시기에는 국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의 장으로서의 박물관 교육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1천 8백여 평 규모의 '사회교육관'이 신축되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연령·계층별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춘다.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 제4장 제23조 제1항과 1984년에 제정된 박물관법 제2조에서 보듯이 국민에 대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육활동이 활발해졌다.

...학교교육 및 타 사회교육기관과의 광범위하고 긴밀한 연대를 통한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우리의 현실로는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외국 박물관과 같이 박물관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문가(educator)가 필요하다. 이들이 전문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박물관에서 행해진 연구성과가 올바르게 교육으로 이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연구활동으로 투입된다고 하는 연구와 교육활동의 유기적인 피드백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이다.<sup>15)</sup>

1984년 '청소년박물관교실', 1986년 '토요공개강좌', '노인문화강좌', 1987년 '초중등교사 역사문화연구', '현장학습', 1989년 '관광통역안내원 역사문화연구', '엄마와 함께 박물관을', 1995년 '주부문화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1990년에는 '움직이는 박물관'(현 찾아가는 박물관)이 개설되어 문화 혜택이 적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 정착된다. 차량 내 작은 전시와 탁본, 스탬프 찍기 등의 체험과 영상 자료 상영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그 내용물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문화교실과 공예교실 같은 연령·주제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1986년에는 교육을 전담하는 '문화교육과'가 새로운 직제로 신설·독립 운영되어 박물관교육 활성화의 도화선을 마련하게 된다.

경북궁 2기의 역사교육 확장에 힘입어, 3기에서는 대상의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역사교육도 신설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김에 따라 학교교육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위한 도화선을 마련하였다.

### 4. 경북궁 4기(1996~2004년)

2000년대에는 외국인, 직장인, 주말가족, 장애인 등 박물관에 오기 쉽지 않았던 차별화된 대상을 위한 세분화된 평생학습이 추진된다. 주5일 근무제의 시작, 여가시간 증대, 시민들의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박물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2002년부터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공예교실'을, 박물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양성교육'과 '박물관문화연수'도 실시된다. 2003년도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배우는 주말가족교실 등을 운영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프로그램의 수와 운영횟수, 참가자 수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2004년 4월에는 박물관교육전문가를 별정6급으로 채용했다. 또한, 특별히 '평생학습 TF팀'을 구성하여 83개의 아이템을 개발, 총 29개 프로그램(공교육연계-9개, 가족·어린이-9개, 소외계층-3개, 성인-8개)의 개발계획을 세웠다.

경북궁 4기에 들어와서는 역사교육의 주 대상인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도

15)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제191호, 1987. 7.

개발되면서 연령대에 따른 적합한 형식의 역사교육이 고민되고 적극적으로 생각되기 시작하였다.

### 5. 용산 시기(2005년~현재)

2005년도에는 대폭 확대된 교육시설과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새롭고 향상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여 미취학 유아, 노인, 다문화 대상자 등 수용해야 할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세분화되어 개발되었다.

교육방법 또한 다양화 되어 강좌 뿐 아니라 체험실습, 강사 없이도 자율적으로 도구와 자료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 다채로운 행사 등이 개발·시행중이다. 2007년에는 교육팀이 독립 신설되고 교육직 학예연구사가 채용되는 등 박물관 교육 직제의 보편화가 진행되었다. 2008년 박물관 교육 국제 심포지엄은 전 세계에서 모인 박물관 교육직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축진제가 되었고,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된 다문화 행사 '내 친구, 베트남!'의 사례처럼 타기관과의 연계, 협조, 공동진행 등의 형태로 교육이 추진되는 등 교육이 범위를 넓히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육팀 업무 영역의 확장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교육개발과 운영 뿐 아니라 평가부분의 중요성도 인식하여 2008,9년 교육프로그램 자료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교육자료 리서치, 교육 평가와 모니터링 업무에 착수했다. 한편, 전시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기획특별전시와 테마전시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도 활발히 개발·진행하여 전시 이해와 흥미를 돕는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형태의 교육도 꾸준히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가장 큰 교육의 변화 중 하나는 어린이박물관<sup>16)</sup>이 만들어진 점이다. 어린이 박물관은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역사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체험식 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학교교육과의 밀접한 연관성과 박물관 역사교육의 필수성을 대변하고 있다.<sup>17)</sup> 더불어 2010년에는 어린이박물관팀이 교육팀에서 분리·독립하여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가족 대상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용산시기까지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변천사를 들여켜 볼 때, 단순히 학교에서만 가르쳐오던 역사가 박물관에서 대중성, 전문성, 자율성을 띄면서 교육대상, 교육방식, 교육내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발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교육 사례<sup>18)</sup>

박물관에서의 역사교육은 전시를 통해 펼쳐지는 역사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관람객(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사교육을 통해, 전시된 역사 속 유물 하나하나의 지식 습득 뿐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 해석과 의미 부여가 발현된다.

16) 국립중앙박물관, 『즐거운 역사체험 어린이박물관』, 2008, 웅진주니어.

1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어 읽기 2-2 교과서』 pp.24~25.

18) 국립중앙박물관,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2010.

여기서는 위에서 서술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의 변천사에서 현재 개발·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말머리에서 소개한 3가지 박물관 교육의 의미를 기준으로 교육방식과 내용, 그 의미를 알아본다.

### 1. 대중성을 지향하는 교육

역사가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또한 역사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친근하고 밀접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대중성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이다. 문화재 감상의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모둠별 활동을 통해 박물관 과거 시험을 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리 보고~ 조리 보먼~’ 교육은 초등학교 4~6학년 단체(150명 내외)가 해당 유물을 찾아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미있는 모둠 활동을 통해 협동 작업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 30~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삼국시대 여러나라’ 교육의 경우, 국가별 유물 관찰과 조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해 보는 학습이 진행된다. 기사 작성을 통해 각 나라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는 색다른 방식의 역사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은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실을 개괄적으로 관람하면서 필수 추천 유물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되 되도록 보고 싶은 유물을 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내포한다. 아울러,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문화의 특징을 추론하는 학습을 해 본다.

중·고등학교 단체(30~4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선특별수사대 CSI’는 가상 사건을 수사하고 추리해 보면서 역사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교육 방식이다. 유물 관찰을 통해 단서를 찾고 역할 분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논리적이고 협동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가상 사건 해결이라는 재미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을 더 가까이 느끼고 스스로 사고하면서, 논리적 이야기 구성을 하도록 학습을 끌어내고 있다.

외국인(다문화 어린이 포함)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K-O-R-E-A! in the museum’, ‘나도 아시아 큐레이터’ 교육은 박물관에서 한국역사에 대해 색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전시실 뿐 아니라 체험 교육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해 익히고, 자기와 밀접한 두 나라를 서로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위 4가지 교육 모두 기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물과 내용을 주로 고려하여 구성,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박물관에서 실제로 관찰하고 체험하는 사후학습 또는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박물관에서 체험한 후 학교에서 배우는 식의 사전학습으로도 활용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며 그 이해를 돕는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 2.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

17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1C 원화·화랑 프로젝트’는 박물관의 다양한 면모를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보는 심화교육이다. 스스로 유물을 관찰하는 방법, 문화재 보존·복원 현장 탐방, 도자기 발굴·복원 실습, 유물에 대한 역사학적·미술사학적 접근 등을 학습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자신의 흥미와 진로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연수’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박물관에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역사교육을 경험하게끔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박물관 소개 및 활용법에 대한 워크숍을 마련하여 심화된 지식과 이해를 전달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위 2가지 교육은 기존 학교교육에서 책을 통해 가르치고 배웠던 것들 또는 학교라는 환경의 제약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역사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 박물관에서 직접 학예사들의 목소리, 실물, 현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학습하는 효과를 누린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핵심적인 사실들을 박물관에서 경험하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 한 조각으로 이어 붙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 3. 자율성을 지향하는 교육

‘지피지기 평생지기’는 중·고등학교 3학년 단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전시 관람 후 ‘나와 닮은 유물 찾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문화재를 감상하는 방법은 미리 소개해 주되,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학습 방식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 관람 시간을 부여하고, 유물을 자신과 동일화 시켜보는 활동을 유도한다.

‘찾아가는 박물관’은 버스를 타고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역사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이다. 대형버스 속 복제유물로 구성된 전시를 자유롭게 감상하고 그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해 보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책으로만 보던 유물을 실제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역사를 경험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역사교육은 자율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배운 역사에 자신을 대입시켜보는 작업을 시도해 본다. 또한 지역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성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IV.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교육 전망

195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는 어린이에게 경주의 문화유적이거나 유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교실 안에 매몰된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생활 주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근접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밀착된 교육이었다는 점이 되새길만하다.<sup>19)</sup>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교육도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유물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중성,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스스로 몰입하고 자신의 방식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본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다.

한편, 기존 전시체계로는 전시실에서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보기 어려웠던 국립중앙박물관은 교과서에 있는 통사적 역사 흐름을 반영한 전시관의 개편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9년 7월 통일신라실과 발해실을 확대 개편하고 고려실을 신설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19) 오영찬, 「문화유산과 박물관, 그리고 역사교육-경주박물관학교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3, 호서사학회, 2009, pp.457-474.

고조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고조선실과 함께 부여·삼한실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2010년 8월 5일 마지막으로 조선실을 신설 개막하게 되었다. 이번 조선실의 개막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통사전시체제 구축을 마무리하며 명실공히 ‘일맥상통 우리역사’의 전당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번 전시 개편과 그에 따른 명칭 변경<sup>20)</sup>은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유물을 통해 그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한 것으로, 1층에서 한국 역사 전체를 돌아 본 관람객들은 2층과 3층에 전시된 조각, 서화 등의 명품 문화재를 만나면서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sup>21)</sup> 즉, 1층에서는 한국사 전반 역사교육의 현장인 역사박물관을 실현하고, 2,3층에서는 명품관과 아시아관을 유지해 통사적이고도 자율적인 구조의 전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기존 명칭	언어별 변경 명칭 표기법			
		한글(한자)	영문	중국어	일본어
1층	고고관	선사·고대관 (先史·古代館)	Prehistory and Ancient History Gallery	史前·古代館	先史·古代館
	역사관	중·근세관 (中·近世館)	Medieval and Early Modern History Gallery	中世·近世館 (高麗·朝鮮館)	中世·近世館
2층	미술관 I	서화관(書畫館)	Calligraphy and Painting Gallery	書畫館	書畫館
	기증관	기증관(寄贈館)	Donations Gallery	捐贈館	寄贈館
3층	미술관 II	조각·공예관 (彫刻·工藝館)	Sculpture and Crafts Gallery	雕刻·工藝館	彫刻·工藝館
	아시아관	아시아관(東洋館)	Asia Gallery	亞洲館	アジア館

표 4.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명칭 표기법

이러한 전시개편과 연계하여 역사교육의 재구성도 시도될 것이다. 전시 내용 구성이 주제 위주의 전시에서 박물관 자체의 일관성 있게 정리된 통사적 역사의식으로 재출발할 수 있게 된 점에 착안, 더욱 체계적이고 주제적인 역사교육의 개발과 운영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로 꿰뚫는 전시의 전체 스토리라인을 이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개별적인 유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군인, 대학생 등 역사교육 대상의 확대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도 증가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재개관하면서 역사관, 아시아관, 어린이박물관의 신설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통사적인 역사의 전시, 우리역사 뿐 아니라 아시아 역사 이야기의 전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역사전시의 장 모두 역사교육의 입장에서 적극 지향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20) 표 1 참조.

21)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새소식.

[http://www.museum.go.kr/KorMain.do?mt=mpu&cmd=2002&h\\_no=10001000&in\\_rwnum=40043400&RLP=new\\_report\\_view](http://www.museum.go.kr/KorMain.do?mt=mpu&cmd=2002&h_no=10001000&in_rwnum=40043400&RLP=new_report_view), 2010년 7월 26일 인용.

오늘날 박물관은 유물을 보여주는 전시 기능과 더불어 관람객에게 역사를 입체적이며, 체험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주로 역사교육을 담당해 온 학교도 이제는 박물관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sup>22)</sup>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교육은 우리 역사를 일맥상통하게 종합 정리한 전시를 통해 '유물'이나 '전시' 자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 뿐 아니라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끊임없이 지향하며 정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어 읽기 2-2 교과서』.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한국 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9. 『한국 박물관 100년사』. 서울: 사회평론  
Durbin, Gail ed., 1996. 『Developing museum exhibitions for life-long learning』. London : The Stationary Office  
Hooper-Greenhill, Eilean ed., 2004.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useum』.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정기 간행물

- 국립중앙박물관(2010),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 논문

- 김호숙, 1999. 「박물관과 역사교육」, 『실학사상연구』 13, 역사실학회.  
류현종, 2008. 「박물관 전시 구성과 초등학생들의 문화 재현」, 『역사교육연구』 7, 역사교육학회.  
오영찬, 2009. 「문화유산과 박물관, 그리고 역사교육-경주박물관학교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3, 호서사학회.  
Hooper-Greenhill, Eilean and Moussouri, Theano, 2001. 'Researching Learning in Museums and Galleries 1990-1999 : A Bibliographic Review'. Leicester :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 강연문

- 최광식, 2008. 「문화의 시대, 박물관의 역할」, 제10회 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술회의 기조강연문.

### 온라인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새소식, 2010.  
[http://www.museum.go.kr/KorMain.do?mt=mpu&cmd=2002&h\\_no=10001000&in\\_rwnum=40043400&RLP=new\\_report\\_view](http://www.museum.go.kr/KorMain.do?mt=mpu&cmd=2002&h_no=10001000&in_rwnum=40043400&RLP=new_report_view)

22) 최광식, 「문화의 시대, 박물관의 역할」, 제10회 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술회의 기조강연문, 2008.

Hooper-Greenhill, Eilean, 2002. 'Developing a scheme for finding evidence of the outcomes and impact of learning in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the conceptual framework',  
<https://lra.le.ac.uk/bitstream/2381/66/1/LIRP%20analysis%20paper%201.pdf>,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Inspiring Learning for all. <http://www.inspiringlearningforall.org.uk/>

Moussouri, Theano, 2002.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learning outcomes in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https://lra.le.ac.uk/bitstream/2381/168/1/LIRP%20analysis%20paper%202.pdf>,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2003. 'Measuring the Outcomes and Impact of Learning in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https://lra.le.ac.uk/bitstream/2381/65/1/LIRP%20end%20of%20project%20paper.pdf>,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2005. 'What did you learn at the museum today? Second study',  
<http://www.le.ac.uk/ms/research/Reports/Whatdidyoulearn2.pdf>,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 표

1.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명칭 표기법

## Session 2 - ②

# 일본 박물관에서의 역사전시

## Historical Exhibition in Japanese Museums

우에노 마사노부 / Umeno Masanobu  
(조에쓰 교육대학 대학원)



















## Session 2 – ③

# 독일의 역사교육과 박물관 견학

## Germany's history education and museum trips

마틴 리파하 / Martin Liepach  
(프랑크푸르트 프리츠바우연구소)

























## Session 2 - ④

# 독립기념관의 역사 전시·교육과 향후 과제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of  
historical exhibition and education i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이명화 / Myung-hwa, Lee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Special Statement

## 연구를 통한 역사학습으로서의 독일의 역사경시대회

Educational History Competition through  
research in Germany

마티나 츠르너 / Martina Tschirner  
(프랑크푸르트대학교)























## Session 3 - ①

# 아우슈비츠 기념관에서의 청소년 역사교육

History education for teenage students at  
Auschwitz Memorial Hall

안드르제이 카코르치크 올렉시 /  
Andrzej Kacorzyk Oleksy  
(폴란드 아우슈비츠기념관)

















## Session 3 - ②

# 나치희생자들을 위한 독일의 기념관에서의 역사 교육

Historical Education at German Memorial  
Hall for the victims of the Nazis

발트라우드 부르거 / Frau Waltraud Burger  
(다카우기념관)























## Session 3 – ③

# 일본 전쟁기념관의 역사교육

## History Education in Japanese War Memorial Halls

기미즈카 요시히코 / Kimizuka Yoshihiko  
(도쿄학예대학)

















**Session 3 - ④**

**과거의 구성과 기념공간 그리고  
역사교육**

**History Organization and Memorial Space,  
and Historical Education**

정호기 / Ho-ki, Chung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기억의 문화와 기념공간 그리고 교육

### -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

정 호 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 머리말

모든 현재는 과거가 되지만, 모든 과거가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기억할 과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하고 특별한 기억력의 보유자일지라도, 기억하는 과거는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오류와 오해 그리고 과장과 기만에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함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과 사회의 기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개인의 기억에 비해 집단과 사회의 기억은 훨씬 복잡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힘들의 각축을 통해 구성된다. 집단과 사회의 기억은 제도화를 지향하고, 권위를 갖는 공간과 의례 그리고 역사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대내외적으로 객관성을 표상하려고 하며, 정형을 유지하려는 힘과 변화를 추구하는 힘이 작동한다.

집단과 사회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데, 특히 문화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기억의 문화(cultural of commemoration)’로 정의되는데, 기억에 대한 선택과 배제, 선별과 구성 그리고 재구성과 권력화 등을 경과하면서 형성된 결과물이다(전진성, 2005: 94-99; 정근식, 2006). 다양한 기억의 문화들 가운데, 큰 규모와 높은 인지도를 갖는 것이 기념공간이다. 일반적으로 기념공간은 특정한 장소에 기념관이나 전시관 같은 건조물, 기념비나 기념물, 상징물, 유물과 유품, 예술 작품 등을 구성요소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과거에 대한 기념과 기억을 위한 행위, 의례,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국가와 지배체제는 집단과 사회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전유하고 전승하기 위해 기념공간에 대해 애착을, 때로는 집착을 보였다. 신민에서 시민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근대사회의 형성은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는 사회 혹은 국가의 통합을 위해 역사와 전통을 창출하고 개조하는데, 사회적 자산과 역량을 투여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주제와 서사는 국가의 건설과 독립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이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중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고려되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념공간은 사회의 기억이 재현되고 고착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구성된 기념공간의 내용과 서사 그리고 이미지가 공인된 역사와 등가성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으나, 정치·사회적으로 중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갖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한국에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성을 갖는 기념공간들이 있다. 이 기념공간들의 주제는 ‘민주화운동’으로, 세계적으로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기념공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조성된 기념공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국립4·19민주묘지’이다. 공간의 기원과 역사의 측면에서 보아도 1963년부터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1980년까지 유일한 민주화운동 관련 집단묘지라는

상징성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 시설과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렇지만 유사 기념공간 가운데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라는 점에서는 ‘국립5·18민주묘지(이하 5·18묘지)’를 능가하지 못한다. 2010년 5월 18일에 개최된 5·18민주화운동(이하 5·18) 제30주년 기념식에서 알 수 있듯이, 5·18민주화운동과 5·18묘지는 여전히 뜨거운 역사적 사건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발발한지 30년이 지났으나, 1980년 5월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활화산과 같은 존재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국가 차원의 새로운 안식처의 조성 그리고 명예회복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이 일정하게 마무리되던 2000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은 1980년 5월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반적 흐름에서 보면, 이러한 의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견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점차 망각되어 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망각을 지연시키고, 기억을 새롭게 하거나 확산시키는 기제들이 작동하면서 상쇄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전환과 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sup>23)</sup>과 활용이 기념공간에서 어떻게 투사되는가를 교육의 시각에서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 글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관점의 형성과 제도화를 둘러싼 환경과 변화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5·18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5·18은 이와 관련된 많은 작업들이 가장 포괄적이면서 다양하게 근래에도 진행되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이를 정리 및 재평가하는 작업과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5·18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반드시 선행 학습을 해야 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례로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 2. 5·18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도화

5·18교육과 관련된 공적 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등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혹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준)공적기관들이 있다. 둘째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같은 공교육 기관들이다. 이 외의 기관과 단체들에서도 5·18교육이 간혹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이 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5·18교육을 가장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5·18기념재단과 대학을 중심으로 5·18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제도화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시민사회운동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 1) 5·18기념재단과 5·18교육

23) 5·18을 주제로 한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지식과 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되거나 전수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데, 이 글에서는 일정한 제도 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로 그 의미를 국한한다.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양호환 외(2009) 참조.

5·18기념재단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성립된 첫 재단법인으로 1994년 8월 30일에 창립했다. 재단은 창립선언문에서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시상사업을 할 것임을 밝혔다.<sup>24)</sup> 학술·연구·문화사업이라는 항목이 교육사업과 중첩되는 지점이 없지 않지만, 통상 교육사업을 별항으로 분류한다는 점으로 보면, 5·18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창립 당시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5·18기념재단의 조직과 사업 영역의 개편이 단행된 것은 1997년 이후였다.<sup>25)</sup> 이는 5·18특별법에 의한 대법원 판결(1997년 4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과 5·18묘지 완공(1997년 5월),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1997년 12월) 등으로 이른바 5·18의 과제 해결에 대한 성과들이 가시화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회고하면, 1998년은 5·18과 5·18기념재단 모두에 중요한 전환기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이 적절하게 형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세히 살펴보면 5·18교육을 위한 시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하반기에 초·중등학생용 소책자 발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생활 속의 5·18민중항쟁(가제)』을 제작하여 다음 해 상반기에 발간하겠다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책의 배포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이었는데, 제도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5·18묘지를 비롯해 5·18사적지를 방문하는 학생들, 특히 수행여행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5·18기념재단, 1998: 105). 이를 위해 이사 1인과 추천 교사 2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5·18의 원인, 과정, 결과, 역사적 의의, 정신의 실천 방법 등을 책자에 수록하려 했다.<sup>26)</sup> 소책자 발간 등을 비롯해 교육적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부 예산이 책정되기도 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5·18기념재단, 1999: 22).

한편 기념공간에 대한 교육적 재인식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업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1998년 5월 행사에 맞추어 5·18묘지에 전시실을 설치한 것이다. 이 전시실은 5·18자유공원의 전시실보다 약 1년 앞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업계획안에는 ‘임시 사진 전시실’로 명명되었는데, 5·18묘지의 추가적 구성요소로 논의되고 있던 ‘유물전시관’의 건립 때까지 이를 대신하려는 것이었다. 이 전시실은 교육보다는 ‘불거리의 제공과 진실의 홍보’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sup>27)</sup>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99년이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는데,<sup>28)</sup>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상한 것은 5·18묘지 참배객의 약40%가 청소년들이었다.

24) 이 점은 5·18기념재단의 정관에서도 확인된다. 정관은 목적사업으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장학사업’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25) 재단은 진실조사, 기념사업, 정신계승사업 등으로 주요 사업 영역을 재편했다. 정신계승사업이 교육을 포괄할 수는 있으나,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다(5·18기념재단, 1998: 96).

26) 또한 1998년에는 5·18사진첩, 비디오, CD제작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CD는 위 사진첩, 비디오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설명 문안은 초등학생용, 중고생용,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5·18기념재단, 1998: 101). 이것은 5·18묘지에 수학여행단이 유치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것을 제작한 이후에는 문교부와 행정 기관, 도서관에 판매한다는 활용 계획도 갖고 있었다.

27) 전시실의 설치 목적은 “5·18묘지에 5·18유물전시관이 건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묘지 참배객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할 아무런 시설물이 없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물을 이용하여 참배객들의 5·18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5·18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전시실은 유물전시관 건립이 지연되면서 2000년에 보완 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주요한 것은 외국인을 위한 설명문의 제작 및 부착, 사진의 노후화에 대비, 조명 등 시설물 또는 음향 시설, 기타 시설 유지 보수였다(5·18기념재단, 2000: 117)

28) 대표적인 사례가 ‘5·18 소재 글쓰기 현상공모사업’이었다. 이외에도 청소년 체험학교, 역사교실 운영사업 등에 관

이들이 수행여행, 테마학습,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5·18묘지, 자유공원, 기념공원 그리고 주요 사적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5·18기념재단, 1999: 127~131), 재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sup>29)</sup> 이들은 5·18자유공원의 강당을 활용하고, 공원 내의 영창과 법정 그리고 5·18묘지, 5·18기념공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입안했다. 또한 5·18안내 가이드 육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계획들 가운데 실행된 것은 불과 일부였다.

교육의 관점에서 5·18이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경이었다. 대표적인 조직이 '5·18민중항쟁 청소년교육위원회'였는데,<sup>30)</sup> 2001년 9월 27일에 「5·18민중항쟁 공교육 방안모색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의제의 중요성을 가시화했다. 공청회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공교육의 구조에서 5·18교육을 어떻게 편입시키고, 제도화할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었다.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진행한 이 행사가 초점을 맞춘 대상은 중·고등학생이었다. 이 논의가 진행될 무렵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간한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광주의 생활'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5·18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김효석, 2001: 12). 그렇지만 당시에는 5·18을 주제로 한 교육 자료가 발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중등교육 교사들은 5·18에 관한 제도 교육의 필요성을 대학 구성원보다 빨리 인식했다(이효춘, 2007). 교사들은 5·18묘지가 조성된 직후부터 5·18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공교육 체제로 5·18교육을 제도화하기에는 장애 요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5·18기념재단과 연대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사회교사 연수가 이루어졌다.

이 문제의식을 가속화시킨 것은 제4대 이사회의 출범(2001년 10월)이었다. 제5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5·18기념재단 운영에 관한 원칙과 사업 방안을 밝혔다. 사업 방안의 4번째 항목이 청소년·교육 사업의 집중을 통한 5·18정신의 미래 가치 정립이었다(5·18기념재단, 2002: 179).<sup>31)</sup> 재단은 5·18 정신의 보편적 가치로의 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연대사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강화와 공교육에서의 5·18교육 활성화 추진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선정했다. 제도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자극한 것은 2001년 12월 21일에 '광주민중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이 법률의 제정은 행정자치부로 5·18에 관련된 중앙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었는데, 국가보훈처와 이원화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반영하여 2002년에는 5·18교육으로 범주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의 항목들만 해도 11개에 이르렀는데, 주로 신규 사업이었다.<sup>32)</sup> 그러나 이 사업들 가운데 다수는 지

한 계획이 입안되었다.

29)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중·고교 국사·사회교과 담당 교사 초청 설명회, 전국 중·고교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추진 계획, 5·18역사 캠프 운영 사업 추진 계획, 우리 고장 우리 역사 학교 운영 사업 계획 등이었다.

30) 이 단체는 5·18기념재단, 전교조 광주시지부, 5·18연주소, 5·18시민봉사단 등이 참여하여 구성했는데, 5·18기념재단이 이를 위한 활동의 장을 제공했다.

31) 이는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은 5·18기념재단이 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4가지 사안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그것은 첫째, 5·18민중항쟁에 대한 청소년 교육과 공교육에서의 5·18교육의 활성화, 둘째, 5·18민중항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연대사업의 성과, 셋째, 5·18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 넷째, 5·18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기초조사 등이었다(5·18기념재단, 2002: 180).

속되지 못했다. 2003년의 재단 사업계획 수립 원칙 가운데 하나가 '5월 관련 자료의 체계화 및 청소년 사업의 내실화'(5·18기념재단, 2003: 152)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계획들이 착근에 실패했다. 2002년의 교육사업들 가운데 계속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청소년교육위원회 운영,<sup>33)</sup> 교사연구 사업, 청소년을 위한 략2002 정도였다. 한편 2003년 교육사업으로 청소년 인권평화학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 주관), 광주 평화캠프사업이 추가되었다.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교육 사업은 시행착오와 변화를 거듭하여 2010년 현재에는 11개가 운영하고 있다.<sup>34)</sup> 즉 5·18교육네트워크, 5·18교육활동지원, 5·18교육대토론회, 전국고등학생토론회, 5·18 청소년문화제, 사적지 안내 및 체험학습 운영, 5·18아카데미, 교육자료 발간, 5·18시민강좌, 교사연수, 오월장사단 운영 등이 있다(5·18기념재단, 2010: 3).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들에 있어서 연구자 혹은 전문가의 역할은 크지 않다. 주요 관련 집단은 교사와 학생들이고, 시민들의 역할이 일부 있다. 이 사업은 회의실이나 교육장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기념공간의 활용과 방문이 필수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5·18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내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기념재단에서는 교육용 교재 발간사업을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5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작 및 발간되었는데,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5·18장학자료'로 인정을 받고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되었다.<sup>35)</sup> 5·18에 관한 교재가 보다 체계화되고 안정화되어 공간된 것은 2005년과 2006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이라는 제목으로 5종의 수업모형을 개발한 책자가 발간되었다.<sup>36)</sup> 그리고 5·18을 주제로 하는 초등·중등 교육 교과서가 공식 발간된 것은 2008년이었다.<sup>37)</sup> 이 교과서들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 교과서로 2008년 12월에 인정교과서 승인을 받았다.

한편 정규 교재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5·18에 관한 교육의 최대치는 고등학교의 『한국근·현대사』라는 과목과 교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발간된 한 교과서<sup>38)</sup>를 살펴보면, 5·18에 관한 직접적인 부분은 넉넉하게 가능하면 2쪽 분량이다. 4·19혁명을 기록한 부분이 7~8쪽, 1970년대 노동운동에 관한 부분이 약 4쪽, 1987년 6월민주항쟁에 관한 부분이 약 2쪽임을 감안하면, 5·18에 관한 제도 교육은 위상과 의미 부여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5·18영상물 제작, 청소년교육연구팀 운영, 5·18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시민강좌, 중고교 5·18체험프로그램 지원(5·18특별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2002년 시작)), 교육용 교재 제작 및 개발, 전국역사교사모임 광주연수, 광주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전국 교사연수, 5·18민주항쟁 22주년 기념 청소년 사업, 예비졸업생(중3, 고3) 5·18 체험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지원, 5·18기념공원 청소년축제 및 프로그램 발표 한마당 등이었다.

33) 청소년교육연구팀은 2002년에 교사 5명으로 출범했다(이효춘, 2007: 69). 5·18기념재단은 학교 교육(교재, 교사연수)에 어느 정도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2003년에는 인원의 폭을 다양화하여 5·18 및 민주·인권·평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교과별, 내용별, 과제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청소년교육연구팀은 발전적 해체를 한 후 사업부 산하에 “청소년교육위원회”로 편성되었다(5·18기념재단, 2003: 171).

34) 5·18기념재단이 근래에 주관한 5·18교육사업에 대한 정리와 평가는 김남철(2010)을 참조.

35) 5·18에 관한 최초의 장학자료는 2004년 3월 11일에 발간되었다. 이 자료는 5·18의 성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 312쪽 분량이며, CD로도 제작되었다. 「무등일보」, 2004. 3. 12.

36) 2005년에는 역사, 미술, 클럽 활동에 관한 교재가, 2006년에는 도덕과 초등용 교재가 발간되었다.

37) 정남석 외, 2008. 「초등학생용 5·18민주화운동」과 장용준 외, 2008. 「중·고등학생용 5·18민주화운동」을 발간했다.

38) 이 글에서는 김광남 외 4인(2009)을 참조했다.

## 2) 대학에서의 5·18교육

공교육 틀 내에서 5·18이 교육 대상으로 공식화된 것은 불과 수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5·18에 관한 교육은 다른 기관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었던 대학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대학에서는 5·18을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5·18에 관한 내용을 누락할 수 없는 수업 과목 혹은 강좌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현대사, 사회운동론, 한국 사회론, 민주주의론 등인데, 대체로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개설한 과목들이 많았다. 이 강좌들은 5·18에 관한 부분을 생략하면 수업의 구성과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5·18을 명시화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의 제도 내에서 5·18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강좌들은 5·18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다루기에는 수업이 포괄할 사건과 주제가 너무 많아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다양한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 혹은 집합행동들을 예시하거나 고찰하는 수준에서 수업이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5·18에 관한 최소 수준에서의 수업이 진행된 것이지 적절한 수준에서의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학에서 5·18에 대한 강좌 개설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준비는 2002년에 등장했다. 광주광역시의 후원을 받아 전남대 5·18연구소가 주관한 이 사업은 전남대 평생교육원과 교양강좌에 각각 강좌를 개설하고, 교재를 발간하는 것이었다.<sup>39)</sup> 그리하여 2003에 『5·18광주항쟁의 이해』라는 제목의 교재가 발간되었으나,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면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유관 강의들에서 이 책이 활용되기는 했으나, 발간 취지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대학에 5·18에 관한 정규 과목이 개설된 것은 2005년 이후였다. 5·18의 주요 발생 배경이 되었던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그리고 광주대학교에 강좌가 개설되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2005년 1학기부터 '5·18항쟁과 민주·인권'이라는 제목의 강좌가, 조선대학교에서는 2005년 2학기부터 '광주항쟁과 민주사회'라는 제목의 강좌가 개설되었다(최영태, 2010: 598). 5·18이 발발한지 25년 만에 비로소 대학 제도 내에서 교육이 제도화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해 2008년에 『5·18 그리고 역사』라는 제목의 교재가 발간되었다.

## 3. 5·18기념공간과 교육의 시선

### 1) 5·18기념공간의 조성 과 결여된 교육의 시선

5·18을 주제로 또는 이와 관련된 공간과 시설들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다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위치해 있다. 이 광주와 전남은 사건의 주요 배경이어서 다른 지역들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간과 시설이 건립되어 있다.<sup>40)</sup> 5·18을 주제로 하는 기념공간과 시설들은 민간 차원에

39) 광주광역시 5·18지원협력관실, 「제115회 시의회 임시회 -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2002. 7.)

서 건립이 먼저 추진되었는데, 군사정부 특히 전두환 정부는 이를 탄압하여 고초를 겪었고, 공간과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강탈되는 사건들도 발생했다.

1987년 6월항쟁은 5·18을 주제로 하는 공간과 시설의 건립과 조성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위해의 완화에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것은 미리 협의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표되었는데,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29특별선언이 발단이었다.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노 대표의 건의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했고, 7월 2일에는 민주정의당이 노 대표의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인 국민화합 분위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광주사태 후유증 처리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5가지로 정리되는데,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이 포함되어 있었다.<sup>41)</sup>

5·18기념공간의 조성에 있어서 국가와 여당의 계획은 다수의 피해자가 안장된 망월묘지의 재조성과 위령탑 건립이었다. 그리고 1990년 7월에 공식화된 것은 상무대 이전 부지 일부의 공원화와 기념탑 건립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에서는 5·18에 관한 어떠한 기념사업도 진행되지 못했다.<sup>42)</sup>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이 가시화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5·13특별담화’를 계기로 5·18의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전남도청의 이전 후 기념시설 조성과 기념탑 건립이 수용과 상무대 이전 부지의 추가 양도를 발표함에 따라 기념 공간의 대상과 규모의 확장 및 확대가 결정되었다. 또한 ‘사적지 보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념 공간과 시설의 조성 대상은 더욱 늘어났다.

5·18묘지의 조성은 국가 차원의 첫 기념사업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에도 5·18묘지의 착공식이 열린 1994년 11월 1일까지 진행은 순탄하지 않았다. 약 1년 6개월 동안 5·18묘지의 조성 목적과 주체 그리고 구상과 내용 등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 그리고 강제와 합의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의 공간적 재현에서 등장할 수 있는 과제와 의제들이 다수가 제기되었다. 또한 기념공간의 개념과 구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제도화 되는가를 보여주었다.

5·18묘지의 공간적 구상은 망월묘지를 대체할 새로운 묘지의 조성과 피해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중앙 정부와 광주시가 주관하던 5·18묘지의 조성 방법과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1993년 12월이었다. 그리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5·18묘지의 조성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했고, 12월 이후부터는 사업의 주체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관한 것이 주안점이 되었다. 5·18묘지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1994년 4월 15일에 공식화되었다. 이를 주관한 것은 ‘5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sup>43)</sup>이었는데, 이들이 제시한 ‘기본 견해’는 망월묘지와 전남도

40) 5·18의 피해보상 측면에서 보면, 5·18은 광주와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피해도 포함한다. 그러나 사건의 주요 배경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광주광역시 일대와 전라남도 중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지역이다.

41) ‘광주사태 후유증 근본적 치유 추진’, 『경향신문』, 1987. 7. 2.

42) 노태우 정부 하에서 5·18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신군부의 일원이면서 가해자들 가운데에서도 최고 수준의 책임자였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정부에서의 기념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원인과 갈등 구도 그리고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호기(2002)를 참조 바람.

43) 이 단체는 위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994년 1월 12일에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13개 시민단체와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결성취지문에서 ‘역사와 후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활동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시민의 여론을 반영한 종합적

청 그리고 상무대의 세 공간을 중심으로 한 5·18기념사업에 대한 시안이었다(5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 대모임, 1994: 77).

5·18기념공간의 조성에서 교육의 시선이 처음으로 표명된 것은 이 즈음이었다. 교육의 시선은 모든 5·18기념공간의 조성에 요구되었으나, '기본 견해'는 위의 3공간들 가운데 전남도청에만 이 개념을 선별적으로 부여했다. 즉 전남도청을 '교육 학습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견해'는 5·18기념공간의 조성에 '교육'의 관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 시안은 이로부터 약 1달 후인 5월 12일에 발표된 「5월 성역화사업의 마스터플랜」에서 정형화되어 제시되었다. 그것은 전남도청 및 그 일대의 광장을 '민중항쟁의 역사 속에서 5·18의 현재적 의미 해석, 연구 및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육이 이루어지는 개념 공간을 특정화 한 것은 교육을 협의의 관점에서 파악했던 것에 기인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다만 전남도청의 기념공간에 5·18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역사연구소, 기념관, 도서관, 회의실, 전시장, 공연장 등이 주요 구성요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공간을 의미화했다. 마스터플랜은 종합적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본격적인 계획서는 아니었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마스터플랜이 근간을 이루어 1995년에 5·18기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국가 주도의 5·18기념사업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이견과 대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었다.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으로 공식화된 이 구상은 이후 5·18기념공간들과 시설들의 조성 및 건립 그리고 배치 및 내용 등에서 근간이 되었다.<sup>44)</sup> 종합계획에서 밝힌 '과업의 목적'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5·18의 정신을 후세에 길이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5·18묘지성역화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옛 전남도청과 상무대에 기념공간의 조성 그리고 유적·유물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5·18묘지의 공간 개념과 내용 구성을 다소 포괄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새로운 집단묘지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고, 이를 추진할 주체와 방법 그리고 내용 등에서만 입장 차이가 있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안에 대해 대립했던 주장은 현장 보존, 저예산과 효율성, 최소 규모, 공간에 민주주의의 원리 반영 등이었다. 이와 같이 5·18묘지의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구상에서 '교육'의 관점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의 관점이 결여되었던 것은 재구성될 전남도청의 기념공간이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남도청에 기념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여러 이유로 지연되면서 이를 대신할 공간이 요구되었다. 강당과 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실 등을 갖춘 5·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이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지만, 이들 공간의 조성에 있어서도 '교육'의 관점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가장 많은 방문이 이루어지는 5·18묘지와 이격되어 있어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

5·18기념사업의 추진이 주요했다.

44) 1996년에 발간된 「5·18기념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서도 교육의 관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어려웠다. 교육을 위한 시설이 일부 있다는 것과 교육의 관점을 반영한 공간의 조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 2) 교육의 시선으로 5·18기념공간을 성찰

5·18기념공간들에서 교육의 시선이 배제되었던 것은 즉시 문제가 되었다. 3공간의 방문객들이 5·18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건의 인지와 정신 및 의의의 계승 기능의 결핍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보고 느낄 내용의 빈곤은 점진적 방문객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점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5·18기념재단이었다.

### (1) 국립5·18민주묘지

5·18기념재단은 2001년 역사의 문 지하에 전시실을 만들었다. 전시실은 당시 사진들과 평면 게시물 그리고 영상물 상영에 불과했으나, 긍정적이 효과가 컸다. 엄밀히 말하면, 7개의 주제의 부조들로 구성된 된 역사마당도 외부 전시물이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방문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지하 전시실이 조성되면서 방문객의 주요 한 동선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역사마당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불거리의 부족과 교육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2002년에 5·18묘지에 ‘유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만 해도 전남도청에 기념관을 비롯해 다수의 관련 시설들이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5·18묘지에는 1997년 망월묘지로부터 이장할 때 출토된 유품들(38종 170점)과 관련 자료들을 전시한다는 초안이 있었다. 이 안은 교육 공간과 시설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산 확보의 난항과 관리 기관의 변경(광주에서 국가보훈처로) 등으로 지연되었고, 전시실에 계속 의존해야 했다.

5·18묘지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2004년과 2006년의 학술연구용역보고서들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다. 2004년에 수행된 학술연구용역은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추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광주광역시, 2004: 17). 2006년에 수행된 학술연구용역은 5·18묘지의 시급한 해결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시민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응답률이 41.5%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18묘지의 시급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민주·인권·평화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42.5%로 역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이 나타났다(국가보훈처, 2006: 57-58). 그리하여 이 보고서들은 교육의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sup>45)</sup>

5·18묘지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런데 프로그

45) 광주광역시(2004)는 ‘구묘역과 신묘역을 정비하고 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2004: 17). 국가보훈처(2006)는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2006: 158~159).

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담아낼 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5·18묘지 완공 이후부터 제시되었던 ‘유물관’의 신축이 다시 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유물관 건립은 다른 5·18기념사업들과 연동되어 지연되었고, 활용과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부각되었다. 결국 장기간 표류하던 유물관 건립은 참배객과 방문객들에게 5·18묘지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 혹은 전시실의 건립으로 대체되었다. 이 계획이 수립될 때만 해도 전남도청에 5·18기념관이 건립된다는 계획은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념관과 유사한, 사실상 차이가 없는 ‘5·18추모관’을 건립했던 것이다. 2007년에 추모관이 개관하면서 기존 전시실은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다시 조성되었다. 5·18묘지 방문객들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설이 빈약하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공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5·18묘지에 교육의 공간들이 추가되거나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교육 프로그램들은 개발 및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보훈처의 관할 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내·외적 제약이 많다. 그래서 5·18에 관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18묘지가 이용될 때, 장소와 시설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 (2) 5·18기념공원과 5·18기념문화관 그리고 5·18자유공원

5·18기념공원의 핵심 시설은 5·18기념문화관이다. 이 건물에 5·18기념재단을 비롯하여 관련단체들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5·18교육의 많은 부분을 5·18기념재단이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5·18기념공원이 교육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5·18기념공원과 5·18기념문화관은 교육에 적합한 공간과 건물이 아니다. 여러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행사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들이다. 5·18기념공원 내에는 2001년 9월에 개관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다. 5·18기념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5·18 당시 학생들의 활동과 피해를 염두에 두어 건립 장소를 제공한 것이다. 이 건물은 복합교육문화시설로 조성되었는데, 5·18교육과 무관한 공간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5·18과의 연계성은 거의 없다.

5·18기념공원이 교육 공간으로 성찰된 것은 2007년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이 계획서는 “현재 5·18기념문화관 자체 기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라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했다(5·18기념재단, 2007: 84). 엄밀히 말하면, 5·18재단이 주관하는 여러 프로그램은 5·18기념문화관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 주체인 광주시가 주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사실 현재로서는 문화관이 교육에 필요한 가장 많은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공간의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육의 관점이 부재했던 것은 5·18자유공원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현장 보존의 필요에 따라 조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설은 본래의 것이 아니라, 신축되었다. 자유공원은 완공될 때 전시실을 갖추고 있었고, 소규모 강연장을 보유했으나, 운영프로그램과 계획은 없었다. 영창과 법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군 재현시설들이 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다. 결국 5·18자유공원은 5·18기념행사를 비롯해 특별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지 않을 시에는 사람이 찾지 않는 공간으로 쇠락해갔다.<sup>46)</sup>

극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2006년의 학술연구용역이었다. 이 보고서는 5·18자유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안을 제시했다. 초점은 ‘연수관’ 건립에 맞추어졌다. 연수관 건립은 교육 공간의 필요성을 5·18자유공원에서 찾은 것이었다. 연수관에는 강의실이나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 및 후생실과 사무실 등이 포함되는데, 기능상의 핵심은 “숙박시설”이었다(5·18기념재단, 2006). 숙박시설은 5·18의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을 방문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기능이었다.

2010년 7월에 ‘교육관’이 5·18자유공원에 완공되었다. 계획에서는 ‘연수관’이었으나, ‘교육관’으로 개칭되었다. 5·18을 주제로 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향후에는 교육관에서 개최될 것이다. 연수관의 건립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교육관’으로 완공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실제 교육관 건립 기간은 반년 가량이었고, 나머지는 광주광역시청과 5·18기념재단 그리고 5·18관련단체들이 장소 선정을 두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기간이었다.<sup>47)</sup>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것은 예산 불용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라는 압박이었다.<sup>48)</sup> 교육관은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강의실 2개, 세미나실, 시청각실, 자료실로 구성되었다. 5·18교육이라는 문제의식을 기념공간 재구성 사업에 관철시킨 주요 결과물인 5·18교육관의 모습과 기능은 5·18을 주제로 하는 ‘공간의 정치(politics of space)’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근래의 사례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4. 기념공간에 투영된 5·18담론과 교육 : 5·18묘지

5·18을 주제로 한 기념공간들은 건립 및 조성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 각 공간들이 담지하고 있는 의미화와 상징성 그리고 담론이 있는 것이다. 이 개념들과 담론들의 기본 구도는 5·18묘지의 조성이 추진되던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본 구도에 의한 공간의 개념화와 상징은 각 공간들의 조성에 따른 시차와 환경 변화들의 영향을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재현의 내용과 변화가 가장 많은 공간은 5·18묘지이다.

##### 1) 복수의 성격 규정과 사건의 재구성

5·18묘지의 공식 명칭은 국립5·18민주묘지이고, 이 묘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이 되는 대상은 1980년 5월에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규정은 사람들과 집단에 따라 다양했고, 변화해왔다. 국가에 의해 정의된 현재의 공식 명칭은 ‘5·18민주화

46) 이 점 역시 광주광역시(2004: 17)와 5·18기념재단(2006: 3)을 참조하기 바란다.

47) ‘반쪽짜리 오월교육사업,’ 『광주드림』, 2009. 7. 14.

48) 교육관 건립은 2009년 12월 4일에 건립공사 공고, 12월 10일에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운동'이지만, 1995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3월 24일까지는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이 2006년 3월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통일되었다. 법률상으로 보면, '광주'를 '5·18'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지만, 사건의 성격과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5·18의 성격 규정에 대한 5·18관련단체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등에서의 다양한 주장들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용어의 문제는 법률에서 정의되는 5·18의 성격에 관한 차이이고, 더 많은 차이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사이에서 그리고 비제도권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5·18의 성격과 정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일정하게 통일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5·18을 부정하는 용어들은 배척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등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5·18의 정의와 성격 규정에 대한 이와 같은 의견 차이와 입장들을 5·18묘지에서 독해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공식 안내판, 참배단의 참배요령 안내문)과 5·18민주항쟁(민주의 문 내부 전시물, 추모탑, 행방불명자 표역) 등에서 사건명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5·18묘지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투쟁이 전개되었던 흔적이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상은 5·18묘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과거에 대한 정의와 성격 규정을 둘러싼 차이이다. 이와 달리 역사적 사건의 정의와 성격 규정의 변화를 통시적 기준에서 고찰하면 과거의 재구성은 보다 뚜렷해진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혹은 관리 주체의 전환에 따라 5·18기념공간이 정의하고 재현하려는 내용과 의미가 달라졌다. 소소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정치하게 분석하면 가벼이 다룰 수 없다. 이것이 특히 잘 드러나는 것은 5·18묘지의 안내판에 수록된 안내문이다.

안내문은 그 시설에 관한 가장 압축적인 설명이자,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글이다. 그래서 기념공간에 새겨진 그 어떤 글귀보다 신중하고 엄밀하게 검토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시설에 관한 공식 안내문은 특별하지 않는 한 변화가 없이 유지된다. 기념공간의 방문객들이 이 안내문을 읽는 것으로부터 참배 혹은 탐방을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문객들이 이 안내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이 안내문의 내용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기념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연구자와 안내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찰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18묘지의 안내문의 내용은 일정한 시점을 계기로 바뀌었다. 안내문의 내용은 2회 이상 바뀐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1월 30일 이후가 하나의 계기였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조성 및 관리되었던 모든 집단묘지들도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른 국립묘지들과 통합 관리의 대상이 되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 안내판의 문안을 정비했던 것이다. 이 두 개의 안내판의 문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의 문안이 훨씬 부드럽고 완화된 표현으로 바뀌었다. 둘째, 전자에서는 '광주민주항쟁'으로 정의했으나, 후자에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5·18묘지의 안장 대상자들에 대해 전자는 사망과 부상 등을 포함하여 '희생되신 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후자

에는 희생과 부상 그리고 구금 후 사망자를 구별하고 있다. 넷째, 묘지의 기원과 관련하여 전자는 5·18 구묘지의 안장자가 먼저 안장되었고 이외에 다른 분들이 안장되었음을 말해주지만, 후자는 5·18구묘지의 안장자들만 이장한 것처럼 독해될 소지가 있다. 다섯째, 5·18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던 법률명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사건의 의의를 전자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면, 후자에서는 불의와 독재를 극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일곱째, 향후 전망의 경우도 전자가 추상적이라면, 후자는 역사교육의 장과 민주성지라는 용어를 통해 구체화했다. 여덟째, 5·18묘지의 관리 주체에 있어서 전자는 국가보훈처를 명시하고 있으나, 후자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다.

<표> 5·18묘지 안내문의 내용과 변화

확인 시기	2005년 11월	2010년 5월
안내 문안	<p>여기 국립5·18묘지는 1980년 광주민주민중항쟁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산화하신 분들과 부상 등 희생되신 분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p> <p>1994년부터 시작한 5·18묘지 성역화사업이 3년만에 완공되어,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저 뒤쪽 산기슭(시립묘지3묘역, 5·18구묘지)에 묻혀 저 세상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던 분들부터 여기에 안장했습니다.</p> <p>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여 온 5·18묘지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 7. 27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p> <p>앞으로도 그 때 함께 싸웠던 분들이 계속 묻혀 그 분들의 거룩한 정신이 여기 우뚝 선 탑 위에 장엄한 불꽃으로 솟아 우리 민족과 세계인의 가슴 속에 널리 번져 나갈 것입니다.</p> <p>2002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장</p>	<p>여기 국립5·18민주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당시 부상을 당하였거나 구금되어 고문과 옥고를 치른 후 사망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p> <p>1994년부터 시작한 5·18묘지 성역화사업이 3년만에 완공되어(1994~1997),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5·18구묘지(광주시립묘지 3묘역)에 묻혀야 했던 분들을 이 곳에 모셔와 안장하였습니다.</p> <p>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여 온 5·18묘지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 7. 27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p> <p>이 곳 국립5·18민주묘지는 다시는 불의와 독재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 우리민족과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한 민주성지로 기억될 것입니다.</p>

한편 전시공간의 변화에서도 차이와 5·18의 재구성을 알 수 있다. 역사의 문 지하에 설치되었던 전시실은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에 촬영된 사진과 사건의 전개 일지 그리고 영상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실을 처음 개관할 때에는 처참한 모습의 시신 사진을 전시하기도 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람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전시실을 대신했던 5·18추모관의 재현과 전시는 이와 크게 대조적이다. 사실(fact)과 진상의 알림과 전달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기법을 도입했고, 사건의 내용은 추상화되었다. 그리고 5·18을 구성하는 주요 사건과 장소 등이 모형과 다양한 기법들로 재현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지하 전시실에서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 인상을 준 시신의 사진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전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2) 5·18정신 교육의 딜레마 : ‘도열’의 표상과 국가화

다른 기념공간에 비해 5·18묘지의 방문객이 크게 많은 것은 단체 방문이 이곳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단체 방문은 대체로 첫째,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각종 행정 기관원들의 참배 둘째,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셋째,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의 참배와 답사가 주류를 이룬다. 단체 방문은 5·18묘지 관리사무소에 방문을 신청하고, 방문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특정 시간에 방문객이 집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편한 정치·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집단들이 동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머무르지 않도록 배려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5·18묘지 관리사무소는 ‘민주의 문’에 당일의 단체 방문 일정을 기록하여 다른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방문에 따른 제 절차를 준비한다.

관리사무소와 협의된 단체 방문은 통상 5·18묘지에서 관례화 한 ‘참배 절차’에 따라 참배와 이동을 한다. 5·18묘지 관리사무소가 제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체 방문을 협의했다는 것은 절차의 준수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 방문의 두드러진 표상은 ‘도열’로 표상되는 단체행동이다. 도열은 도입 공간인 ‘민주의 문’을 지나 ‘민주광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대열은 5·18민중항쟁추모탑 앞 참배단까지 이어지고, 헌화, 분향, 경례·묵념 등에서도 유지된다.

단체 방문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열을 이탈한 행동과 참배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대열을 이룬 단체의 이동과 의례는 개인 참배객 혹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집단 참배객과 대조적인 추모 문화를 보여준다. 제도화된 참배 절차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질서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화적 기원으로 보면, 이 절차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웅 숭배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참배 문화가 식민지 통치 문화를 우회하여 굴절되어 도입되었다. 그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걸치면서 독립 및 전쟁 영웅들에 대한 제도적 추모 문화의 정립 과정을 경과하면서 유사한 형태로 재활용되었다.

정형화된 추모 방식은 단체 참배객, 특히 수학여행의 코스로 참배한 학생들에게는 여하의 국립묘지와 의 차이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집단묘지가 표상하는 엄숙과 숙연의 분위기는 그 공간이 조성된 목적과 이유의 차별성은 최소화하는 반면, 여하의 국립묘지들과 동질성을 느끼게 한다. 죽음의 원인과 사건의 배경이 다를 뿐, 이에 관한 동종의 참배문화는 긍정적 수용을 방해한다. 수학여행 학생들이 5·18묘지의 다른 시설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참배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아 애시당초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어렵다. 이와 같은 국립묘지에서의 정형화된 참배 행위는 5·18정신의 교육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도 크게 회의를 갖게 한다.

5·18묘지의 관리 주체가 지방정부였던 시기에는 이러한 추모 절차의 적용과 강박증이 미약했으나,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관리 주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된 이후에는 정형화된 국가 의례적 추모 문화가 여과와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관철되었다. 5·18묘지에 올리던 추모곡도 이러한 변화의 차이를 잘 드러내준다. 이 묘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한동안 ‘모래시계’의 주요 배경 음악으로 사용된 ‘백학’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추모곡으로 채택되었다. 이 음악은 12·12군사반란과 5·18 그리고 삼청교육대 사건 등 신군부가 시민사회에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직접 연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곡은 더 이상 방송되지 않았고, 잔잔한 추모곡으로 대체되어 국립묘지들의 특이성이 소멸되었다.

## 5. 맺음말

1980년 5월 이후, 오랫동안 5·18의 과제와 쟁점은 사실의 발견과 진상의 규명,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책임 소재를 밝혀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맞추어졌다. 이 시기에 교육이라는 문제의식은 후순위 과제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고, 제도 교육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주장은 가능하지만 현실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사 제도교육이 가능했다고 할지라도, 진상규명이 일정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난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도의 영역 외부에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5·18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 집단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경험 및 기억의 사료화 작업 등을 통해 국가의 ‘공식’ 담론을 반박하는 5·18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생산된 ‘비공식’의 5·18은 자료와 기록 그리고 문건과 서적 등을 통해 은밀하게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도화된 교육은 불가능했으나, 신문과 방송 그리고 저널과 금서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5·18교육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중은 민주화운동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세미나와 학습 활동을 통해 저항적 관점에서 5·18담론을 공유했고, 그 의의를 민주화운동으로 전화시킴으로서 전승과 계승에 참여했다. 5·18의 교육과 학습 행위는 불온하고 위험한 것으로 규정되어 공안당국의 규제 대상이었으나, 교육과 학습이 미친 영향은 계속 확산되어만 갔다.

엄밀하게 보면, 5·18의 기념공간들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도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5·18기념사업은 교육의 관점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성찰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중요성은 5·18의 청산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과제가 제기될 때, 비로소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교육은 제도라는 관점에서 고려되는 것이었다. 기념공간과 교육공간이 일치함으로써 이를 내재하고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향상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념공간들이 교육의 관점에서 고찰된 것은 한참 이후였다. 그것은 제도 내에서 5·18의 교육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면서였다.

5·18기념공간들의 조성과 활용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시기와 연동되어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반영한 기념공간들을 건립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5·18기념사업에 대한 평가들에서 핵심적 문제제기는 ‘하드웨어의 건설에 치중하고, 이 시설의 활용에 관한 운용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원인은 ‘관심, 예산, 인력의 부재’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념의 내용이 불분명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지적된바 있다(정근식, 2002: 33). 즉 기념의 내용이 불분명한 점이 운영 프로그램의 미비와 공간 및 시설 구성의 한계로 이어지는 중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옛 전남도청의 터에 5·18을 교육하고 연구하며 계승하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지연되고 굴절되었던 것도 기념공간을 새롭게 성찰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옛 전남도청에 대한 활용 방안이 변경되면서 5·18기념사업과 기념공간들에 부여된 개념들이 불

가피하게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과거사를 다시 규명하고 재평가하는 것 그리고 규명된 진실에 의거하여 역사와 기억을 재구성하고 교육하는 것은 비단 5·18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과 재인식은 1988년 국회에서 「광주진상특위」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점차 확산되어 동학농민 전쟁 이후 근래에 발생했던 사건들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사를 재구성’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개선 및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었는데, 피해자와 사회구성원의 이목을 모으는 지점은 정정 또는 재평가된 과거사가 공교육의 제도 내로 수용되는가 여부였다. 그리고 재구성된 과거사에 관한 내용을 항상적으로 보고 느끼고 되새길 수 있는 추모공간이나 기념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는가였다. 이 두 가지는 과거사 청산과 재인식의 효과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18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와 성찰을 필요로 한다.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재구성에 더 많은 관심과 촉각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5·18기념사업과 기념공간은 교육이라는 시선과 관점이 왜 중요하며, 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과거사에 대한 교육의 제도화가 갖는 한계와 진정성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충분하고 심층적인 고찰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인 것이다.

## 참고문헌

- 5·18기념재단. 1998.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후원회 자료집>.
- 5·18기념재단. 1999.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총회(후원회) 자료집>.
- 5·18기념재단. 2000. <2000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자료>.
- 5·18기념재단. 2002. <2002년도 제1차 이사회>.
- 5·18기념재단. 2003. <2002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자료>.
- 5·18기념재단. 2006. <5·18자유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 5·18기념재단. 2007. <5·18기념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리모델링 연구>.
- 5·18기념재단. 2010. <5·18기념재단 소개 리플릿>.
-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1996. 『5·18기념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 광주광역시. 1995.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
- 광주광역시. 2004.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종합기본계획(요약 보고서)>.
- 국가보훈처. 2006. <국립5·18민주묘지 장기발전 방안>.
- 국가보훈처. 2007. <국립5·18민주묘지 10년사>.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2007. 『국립5·18민주묘지 10년사』.
- 김광남. 2009. 『한국 근·현대사』. (주)두산.

- 김남철. 2010. 「5·18교육, 어떻게 해왔는가」.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5·18교육대토론회 자료집》, 5·18기념재단 외.
- 김유경. 2002. 「국민국가의 집단기억과 역사교육·역사교과서」. 『창작과 비평』 제115호. 창작과 비평사.
- 김호숙. 1999. 「박물관과 역사교육」. 『실학사상연구 13 - 한국사교육논총』.
- 김효석. 2001. 「5·18민중항쟁 청소년 교육교재내용과 실천방안」. 《5·18민중항쟁 공교육 방안모색 공청회 자료집》, 5·18민중항쟁 청소년교육위원회.
- 나간채·강현아 편. 2003. 『5·18광주항쟁의 이해』. 전남대학교 출판부.
- 심성보. 2010. 「5·18교육, 무엇을 말하느냐」.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5·18교육대토론회 자료집》, 5·18기념재단 외.
- 양호환 외. 2009.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 양호환. 2010.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109집. 역사교육연구회.
- 이효춘. 2007. 「우리에게 기억하고 가르쳐야 할 역사가 있다, 5월!」, 『역사교육』 제77호. 전국역사교사모임.
- 장용준 외. 2008. 『중·고등학생용 5·18민주화운동』. 5·18기념재단.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8.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 전진성. 2004. 『박물관의 탄생』. 살림.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 정근식. 2002. 『기억·장소·축제: 5·18 역사공간을 어떻게 문화공간화 할 것인가?』. (재)광주비엔날레·(재)5·18기념재단.
-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97집. 역사교육연구회.
- 정남석 외. 2008. 『초등학생용 5·18민주화운동』. 5·18기념재단.
- 정호기. 2002.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최영태 외. 2008. 『5·18 그리고 역사』. 길.
- 최영태. 2010. 「5·18의 기억과 교육」,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①》, 5·18연구소·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
- 최호근. 2009. 『독일의 역사교육』. 대교출판.
- 허연식. 2002. 『5·18기념사업에 대한 반성과 전망』. (재)광주비엔날레·(재)5·18기념재단.
- Wineburg, Sam, 2001, Historical Thinking and Unnatural Acts, Temple University.(한철호 역. 2007. 『역사적 사고와 역사교육』. 책과 함께)